

‘장성 싱크홀’ 호남고속철 안전 이상 無

철도공단, 용역 결과 고속철도 지하 단단한 석회암반으로 구성 800세제곱미터 규모 지하 공간 1곳 발견...이달 중 메우기 공사

장성군 황룡면 일대에서 발생되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호남고속철도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은 장성 황룡면 와룡리 고려시멘트 석회암(건동)광산지역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고속철도 안전성 검토용역을 지난달 30일까지 추진한 결과 호남고

속철도는 안전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5일 밝혔다.

호남본부는 고속철도와 인접한 장성 지역 농경지에서 싱크홀이 발생된 이후 호남고속철도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인 한반도학회에 의뢰해 안전성 검토용역을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1월17일부터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고속철 주변 ‘연약지대’에 대한 지하 정밀 시추작업을 함께 실시했다.

안전성 검토 용역은 호남고속철도 인근 연약지반(폭 160m.길이 400m)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토결과 고속철도 지하는 단단한 석회암반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반에서 23~31m

아래’ 입반 중간층에서 하천을 따라 800세제곱미터(m³) 규모의 지하 공간 1곳이 발견 됐다.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이 지하공간은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자연 침식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지하공간이 단기간에 확장되거나 붕괴될 우려는 없고, 열차 운행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호남본부는 고속철도의 중요도와 사회적 안전의식을 감안해 석회암반 내 지하공간을 선제적으로 채우는 공사를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인정 추진한다

행안부, 국회에 입장 전달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국회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

다.

태풍·홍수·가뭄·지진·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길이 열리고 휴교령 같은 긴급 대책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은 미세먼지를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꽃비가 내리요 식목일이자 절기상 청명(淸明)인 5일 오후 제주시 아라리동 제주대학교 인근 벚꽃나무길에 아이들이 찾아와 떨어진 꽃잎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 이명박 9일 기소 방침...옥중조사 사실상 유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를 3일째 방문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른 오는 9일 이전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틀에서 크게는 벗

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동부구치소를 찾아가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찾아 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

사를 거부해도, 보강 조사를 토대로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3번씩이나(동부구치소에) 찾아간 상황에서 무턱대고 다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변호인을 통해 계속 설득하는 등 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스

법원, ‘박근혜 선고’ 출입통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

제·운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법원청사 및 법정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문을 폐쇄한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또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원유 유출사고로 비상사태 선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저 송유관 파열로 인한 원유 유출 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칼리만탄티투르주(州)의 도시 발릭파판의 시정부 관계자는 4일 AP통신에 시 전체가 원유 누출사고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지난 2일부터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안 지역이 마치 주유소 같다”며 “근로자들과 주민들에게 담뱃불 주의 등 안전 제일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발릭파판에서는 지난 3월31일 송유관 파열로 유출된 원유에 불이 붙으면서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다. 시 전역에는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1300명이 넘는 주민이 호흡장애,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시정부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했다.

항만당국은 유출된 원유 제거 작업을 위해 현지에서 정유공장을 운영하는 국영 정유사 페르타미나와 세브런 인도네시아 지사와 협력하고 있다. 항만당국 관계자는 AP통신에 해양 기름 오염 확산 방지용 잠치인 오일붐(oil boom) 5개를 현장에 설치해 석유 1만4600배럴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시피 누르비야 환경부 장관은 4일 성명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인일한 대처를 비난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대변인은 4일 CNN에 “정부가 이 사태의 피해를 완화하기에 너무 늦었다”며 “석유가 유출된 지 5일이 지났는데 지원 장비 부족으로 제거 작업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그린피스는 이번 화재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유출된 원유를 태우려고 의도적으로 낸 것인지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日 신모에다케 화산, 또다시 폭발적 분화

일본 규슈(九州)에 위치한 화산 신모에다케(新燃岳·해발 1421m)가 5일 오전 또다시 폭발적으로 분화해 기상청과 현지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NHK는 기상청을 인용해 이날 오전 3시 31분 신모에다케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 화산재와 연기가 5000m 상공으로 치솟고 크기가 상당히 큰 화산 돌덩이가 1.1km 밖까지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신모에다케 화산에서 분화활동이 다시 격화되면서 화산 주변 약 3km 이내에 대한 경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폭발적 분화로 인해 주변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모에다케는 규슈 가고시마(鹿兒島)현과 미야자키(宮崎)현 경계에 위치한 기리시마(霧島)산의 한 봉우리로, 지난 3월 초 분화를 시작했다. 신모에다케가 폭발적으로 분화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독일서 기르던 개에 물려 母子 사망

독일 북부 하노버 시 아파트에서 한 여성과 성인 아들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일 밤 한 친척이 아파트 창문으로 사람 시신을 보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먼저 스테퍼드셔 데리어 한 마리를 포획해야 했으며 이후 52세의 여성과 27세의 아들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두 희생자가 ‘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의학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000년 개들이 어린이를 포함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나운 맹견(attack dog)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서 밀주 마시고 최소 10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주변 도시에서 유독성 밀주를 마시고 적어도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경찰이 4일 밝혔다.

토니 수리아 동자카르타 경찰서장은 이날 수도권에서 무허가업자가 만든 독주를 먹은 이들이 상당수 죽거나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했다.

문제의 증류 밀주를 마신 사람들이 이상을 느끼고 병원이나 진료소로 달려갔지만 최소한 10명이 바로 숨졌다고 수리아 서장은 설명했다.

수리아 서장은 자카르타에 있는 수도경찰청에서 행한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가 여러 곳에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독성 밀주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업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뒤쫓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염류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발견률	사망률 감소
일반건강검진	발견률 1.5배	42%p 감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발견률 1.5배	42%p 감소
염류아 건강검진	발견률 1.5배	18%p 감소
임 검진	발견률 1.5배	18%p 감소

*발견률은 건강검진이 총합하거나, 미리 미리 건강을 살펴서.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